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 덕 출생아 꾸준히 증가세

2022년 대비 출생아 106% ↑
MZ세대 맞춤 현금 지원정책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빈집 활용 등 인구소멸 예방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 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 경제권에 발맞춘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2022년 첫 시행 대비 출생아 증가율이 106% 늘었다. 군은 이에안주하지 않고 편리한 육아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93명으로 이는 2022년 1년 동안 출생아수 93명

과 같은 숫자다.

1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태어난 셈이다.

육아수당 시행 연도인 2022년 상반기 출생아 45명과 비교해 2024년 동 기간에 48명이 늘어 무려 106.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3년 같은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명이 늘어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용이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실질적 인구 순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대비 전남도내 일선 시

군의 평균 출생아 증감률은 2022년 -0.2%, 2023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진군의 출생아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6월말 현재 누적 3218명, 2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음이 결과치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파격적인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해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현금성 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강진군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 실시
완도군, 16~22일 원서접수

완도군은 ‘2024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직급은 9급이며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은 시설(일반 토목) 7명, 시설(건축) 3명, 공업(전기) 1명 등 총 11명이다.

군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경력 경쟁 채용 시험부터 인·적성 검사를 도입했다.

인·적성 검사를 통해 직무 성향과 조직 적응력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응시 연령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거주 제한은 없다.

제4회 경력 경쟁 임용시험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원서접수 후 27일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9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강진군, 어르신 건강관리 나서
AI·IoT 기반 근력강화 등

강진군은 7월부터 연말까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인구 고령화, 의료자원 지역 불균형 등 지역 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늘 건강’ 스마트폰 앱(APP)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비대면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 5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아이폰 제외)을 소지한 허약·만성질환 및 건강 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이 선정됐다.

대상자는 △보건(지·진료)소에 등록된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독거 어르신 또는 건강위험요인(혈압·혈당·비만) 판정수치 중 1개 이상인 어르신 △식생활·신체활동·투약 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순으로 선정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1~5등급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대상자는 지침에 의거 제외됐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선정된 대상자에 사전 건강 조사를 실시했으며 건강 상태에 맞춰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나눠 스마트폰 ‘오늘 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비대면 건강컨설팅 및 맞춤형 건강정보 미션 등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 시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는 전원 배부하며 혈압계와 혈당계는 사전 건강 조사를 통해 선별 배부한다. 6개월 동안 서비스 완료자에게는 디바이스를 지급하고 미션 달성까지 완료하면 성공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서비스 완료 후 1년 뒤에 사업 재참여가 가능하며 신규 참여자는 내년에 모집할 계획이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근력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비롯해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령화 시대에 맞는 AI 기술과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섬 수국축제 개최로 교통량이 증가한 암태 남강선착장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교통안전협의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신안군이 지난달 26일 교통안전협의체 주관으로 섬 수국축제 개최로 교통량이 증가한 암태 남강선착장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는

신안군, 신안경찰서, 신안소방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규정 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

지, 교통신호 준수 등 안전수칙 홍보에 집중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 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반값 강진 여름여행 운영 ‘눈길’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줘

누구나 강진으로 여행을 오면 예상했던 경비의 절반으로 여름 한 철을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2023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제주 관광객 1인당 평균 여행 지출이 66만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강진군의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행비용의 절반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는 반값 강진여행은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고물가로 인해 망설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행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강진의 독보적 여행 상품이다.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은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친구, 연인, 단체모임

관광객도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 당일까지 강진반값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 놀랄만한 소식이다.

8일부터 기존 참여자들도 반값 강진여행 재신청이 가능해 반값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가우도에서 개최되는 2024 가우도 레저 투어 기간 동안 행사장만 방문해도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 가우도 레저 투어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벤트로 천혜의 섬 가우도에서 쥘트랙, 제트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워터폴장 물놀이, 샌드아트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거리와 버스킹 공연까지 낭만가득한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반값 강진여행 사업은 관내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4022팀(1만1036명)이 정산신청해 6억1000만원 가량의 강진사랑상품권을 돌려받았고 지급된 강진사랑상품권 중 35%가 온라인 쇼핑물 초록민음강진에, 45%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되면서 매출 증가와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경기 활력을 끌어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 반값 강진여행은 여행객들의 부담을 절감해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민 매출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곧 있을 여름 휴가 때 꼭 강진을 방문하시라. 반값으로 가우도 레저 투어도 즐기고 시원하게 별미도 즐기고 낭만 가득한 여름날의 추억을 강진에서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촌캉스’ 참가자 모집
7월 한달간

강진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촌캉스’ 참가자를 7월 한달간 모집한다.

촌캉스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문화로, 남다른 것을 추구하는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은 군을 대표하는 여행 상품인 강진 푸소(fu-so)에 특화된 여름 프로그램을 더해 지난해부터 강진의 푸소 농가에서 숙박하며 농촌의 감성과 정을 체험하는 여름 한정 ‘푸소 촌캉스’를 운영하고 있다.

푸소 촌캉스는 2박3일동안 푸소체험(숙박 및 음식체험 등)과 강진군의 자유여행을 1인당 11만6000원으로 알뜰하게 즐길 수 있으며 1만5000원 상당의 체험시설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후기를 작성하면 별도의 굿즈도 증정한다.

여름을 맞아 ‘강진읍 V-랜드’, ‘도암면 석문공원’, ‘칠량면 초당리 물놀이장’ 등 강진 3대 물놀이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2024년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을 연계하면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푸소 촌캉스 체험은 한적하면서도 시골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강진 관광의 백미를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푸소 촌캉스도 즐기고 반값 여행도 즐기며 더 알뜰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강진에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푸소 예약은 푸소 홈페이지(<http://www.fuso.or.kr/main.php>)를 통해 하면 되고, 반값 여행 할인 혜택과 함께 촌캉스를 즐길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